



중세 유럽에서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읊었던 시인을 두고 '음유시인'이라고 말한다. 이 음유시인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가수가 있다. 바로 '존재의 이유', '사랑을 위하여'를 부른 김중환이다. 그의 노래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중독성 강한 '진정성'이 녹아 들어 있다. 그래서 그의 노래 가사가 더욱 가슴에 와 닿는 한 편의 시가 된다. 그런 그가 최근 새로운 노래 '사랑이여 영원히'를 들고, 다시 음유시인이 되어 돌아왔다. ☞ 최용균 ^{서민}인우기획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음유시인

가수 김종환



사랑과 희망이라는 향긋한 향으로 이 시대를 어루
만지는 음유시인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그대를 사랑하게 됐고
똑똑하게 사랑하겠던 마음이 그대 앞에선 사라지고
아무 때나 찾아오는 보고픔에 젖은 그리움이
내 나이가 지나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속상해요 가는 시간이, 속상해요 또 오는 세월이
가시 같은 현실의 강을 건너가도 난 내가 있어 괜찮아
얼마 동안 사랑하고 얼마 동안 너를 보게 될까
미치도록 보고 싶어 가슴 아픈 날이 많았는데
아무리 힘든 날이 와도 난 네 손을 놓지 않겠다

-사랑이여 영원히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들고 나온 김종환의 '사랑이여 영원히'의 노랫말이다. 히스키하면서도 애절한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더해져 한 편의 시가 된다. 이 노래는 7년 전 가을에 썼던 노래이다. '존재의 이유', '사랑을 위하여', '힘한 세상에 너의 다리가 되어' 등도 그의 목소리가 더해져 한 편의 시로 완성되었던 노래들이다.



그리고 이 노래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애창곡이 되었다.

김종환, 그는 왜 이토록 사랑과 희망이라는 향
으로 가
득한 서
정적인 노래들을

부르는 것일까?

“가사는 시(詩)여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어
요. 요즘 노래들의 가사는 너무 유행에 따른
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렇다 해서 유행을 따
른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
큼의 강한 메시지가 있고, 전달력도 강하니까
요. 하지만 저는 한 편의 시와 같은 노래가사가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서정적인 노래가사는 그의 노래의 토대
이다. 그래서 그는 현악기 위주의 아름다운 멜로디
로 노래를 아름답게 포장한다. ‘사랑이여 영원히
뮤직비디오 나오는 오케스트라도 같은 맥락이다.

사랑과 희망을 말하는 노랫말에 아름다운 선
율이 더해진 김종환의 음악은 말아도 말아도

지겹지 않은 라일락 꽃향기 같다. 봄내음 가득 머금은 라일락 향
기가 겨우내 움츠려들었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 듯 바쁜 일상
에 지치고, 삶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심금을 서정적인 노래로 위
로해주고 어루만져준다. 그렇게 김종환은 1985년 데뷔한 이래
우리의 삶을 다독여왔다.

심금을 울리는 노래는 그의 삶의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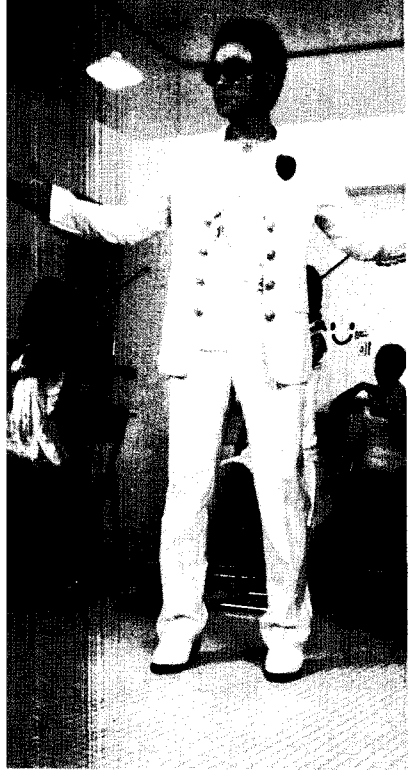
마음이 알찌할 정도로 아련한 서정성과 진정성이 그의 노래에
가득한 건 그가 힘겹고도 힘들었던 긴 무명시절이라는 삶을 깨끗
하게 버텨왔기 때문은 아닐까. 그를 일약 스타로 올려서게 만
들어준 노래 ‘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가 그러하다.

7살 때 기타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이후로 줄곧 가수로
살아온 그는 1985년 ‘월곳없는나’로 데뷔한 후 1998년 ‘사랑
을 위하여’로 대한민국 영상음반대상, 골든디스크대상을 차지
하며 스타로 떠오를 때까지 긴 무명시절을 보내왔다.

1997년에 발표한 정규앨범 3집 타이틀곡 ‘사랑을 위하여’는 무
명가수 시절에 만들어진 노래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내
와 아이들이 강원도 친정집에 있고, 김종환은 서울에서 홀로 하
숙을 하며 지냈다.

“5년 정도 아내와 아이들과 헤어져 지냈어요. 서울과 홍천을 오
가는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있었던 시기였죠. 홍





천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어느 강가에 차를 대고 잠시 잠을 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잠에서 깬데 정말 눈 앞에 구름처럼 일렁이는 물안개가 피어있었죠. 그때 그 자리에서 삶을 그대로 노래한 게 바로 '사랑을 위하여' 예요.”

‘이른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로 시작하는 ‘사랑을 위하여’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녹아 들어있고, 그 이후의 가사에는 그의 애절한 사랑이 녹아들어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그렇게 그는 우리의 곁으로 다가섰고, 아내와 떨어져 지내던 시절, 공중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노래로 만든 ‘존재의 이유’로 음유시인이 되었다.

베푸는 건강한 삶을 실천하며 챙기는 건강

누구에게 제대로 무명의 설움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그이기에 그는 삶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무명시절부터 군부대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었다. 스타가 된 이후에도 그는 나누는 삶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병원 음악회는 6년째 빠지지 않고 챙기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병원 음악회에서 만났던 환우가 완치되어 개인 콘서트장을 방문

했는데 투병생활 동안 그의 노래가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에서 ‘작은 나눔이 만드는 큰 힘’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가 올해로 6년째 봉사활동을 어김없이 챙기는 이유이다. 또한 15년 만에 때늦은 결혼식을 올린 2000년에는 사비를 털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의 합동결혼식을 올려주기도 했었다. 이렇듯 가수 김종환은 베푸는 삶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의 베푸는 삶이 알려져 2008년에는 ‘선행 예술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종환 그는 이처럼 베푸는 건강한 삶을 실천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 신체의 건강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 특별한 건강 비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삶 그 자체가 건강이었다.

제 아무리 강산이 변한다 해도 애창곡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불렀던 노래를 세대가 바뀌어 자식들이 따라 부르듯 김종환 표 목소리가 표현해내는 서정성과 진정성 가득한 그의 노래들도 세대를 뛰어넘어 그렇게 불릴 것이다. 6

